

보도시점

2026. 6. 12.(금) 06:00  
< 6.12.(금) 석간 >

배포

2026. 6. 11.(목)

## 한-모로코 경제협력 가속화

- 통상교섭본부장, 모로코 통상장관과 국장급 작업반 설치 합의
- 교역·투자 및 산업협력 확대 방안 논의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-모로코 간 통상·산업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6.11.(목)~12.(금) 모로코를 방문하여 모로코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국무장관과의 회담과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
여 본부장은 6.11.(목) 오마르 헤지라(Omar HEJIRA) 모로코 통상담당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교역·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. 동 회담에서 양국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장급 작업반을 신설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-모로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)\*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.

\*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(CEPA,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  
: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

또한, 여 본부장은 현대로템 전동차 현지 공장 설립,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용 리튬 제련소 투자 등 우리 기업 현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, 양측은 조선, 방산 등 그 외 다양한 산업 분야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여 본부장은 모로코 진출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관세 및 물류, 통관, 조세 등 현지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, 해결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이와 관련하여 여 본부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현장 애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아울러, 여 본부장은 최근 모로코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현지 한국 화장품 전문매장을 방문하여 K-뷰티 제품의 모로코 내 유통·판매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모로코는 북아프리카의 핵심 신흥국\*으로 유럽·미주·중동·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미국,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서,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관문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기업들의 안정적인 교역·투자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\* 모로코는 배터리 등의 원료인 인광석의 최대 매장지로, 자동차 등 제조업 협력과 함께 인광석, 망간 등 주요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거점으로도 주목되고 있음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통상협정정책관<br>통상협정정책기획과 | 책임자 | 과 장 | 윤선영 (044-203-574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우희승 (044-203-5743) |
|       | 통상협력국<br>중동아프리카통상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이중엽 (044-203-57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덕미 (044-203-5727) |

